



이을용 - 이영표 '자물쇠' 출격

오늘 밤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가상의 스위스' 보스니아 상대 국내 마지막 평가전

이을용(토른헨)과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트)이 2006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스위스를 가상의 적수인 동유럽 다크호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FIFA 랭킹 63위)의 공격 예봉을 걸 어잡을 '자물쇠 키 플레이어'로 나선다.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6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보스니아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구상한 전략의 초점은 지난 23일 세네갈전에서 드러난 미드필더진과 포백 라인의 공백을 메우는 데 맞춰져 있다.

아드보카트호는 세네갈전에서 삼각형 중원 편제가 압박 플레이에서 우위를 잡지 못했고 날카로운 '전진 킬 패스'를 선보이지 못했다. 포백은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예를 썼지만 측면 대인마크에 실패해 불안감을 노출했다.

불안한 미드필드·포백 허점 보완 초점 공격 설기현-안정환-이천수 '스리톱'

우선 공격진에는 세네갈전과 같은 스리톱(3-top) 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좌·우 윙포워드 설기현(울버햄프턴), 이천수(울산)와 중앙 원톱 안정환(위스부르크)이 출격할 전망이다.

그러나 세네갈전에서 가슴 트래킹과 매끄러운 후진 패스로 김두현(성남)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박주영(FC서울)이 왼쪽 날개로 먼저 출격할 수도 있다.

중원 트라이앵글은 공격형 미드필더 김두현,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 이을용과 이호(울산)가 출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격의 물꼬를 터야 하는 특명을 받

게 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일단 무리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출격 대기 명령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을용은 경험이 부족한 이호를 이끌어 탄탄한 '볼란드 듀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수비만 하는 것은 사활'이라고 밝힌 바 있는 이을용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했듯이 팀이 보이면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겠다는 기세다.

포백 라인에는 이영표가 김동진(FC서울) 대신 나서 힘을 보탠다. 세네갈전에 결장한 이영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준 과감한 오버래핑으로 왼쪽 측면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오른쪽에도 공격 성향이 돋보이는 조원희(수원)가 선발 출전한다. 송종국(수원)은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 중앙 수비수에는 김진규(이와타)와 최진철(전북)이 그대로 출격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태극전사들의 단체 인터뷰

박지성 "보스니아전 2-0으로 이긴다"

'파워 엔진'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6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예상 스코어를 제시하며 승리를 장담했다.

박지성은 25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태극전사 단체 인터뷰에서 보스니아전 전망을 묻자 박주영(FC서울)과 이천수(울산)가 한 골씩 넣어 2-0으로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박지성은 아드보카트호가 반드시 '순항'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나름의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대표팀이 국내 평가전에서 이긴 적이 많았지만 그렇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에서 치른 평가전에서는 진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그게 월드컵에서는 약이 된다"고 말했다.

안정환 "유럽팀엔 스피드를 이용해야"

"유럽팀을 상대할 때는 1대 1로 맞서는 것보다는 스피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지의 제왕' 안정환(30·위스부르크)이 유럽팀 대처방안을 내놓았다.

안정환은 "유럽팀은 힘이 좋은 데다 최근에는 기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힘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한국 팀 특유의 한 템포 빠른 순발력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스니아는 신체조건이나 플레이 스타일이 유럽팀과 비슷하기 때문에 힘에서는 현실적으로 열세"라며 "몸싸움을 하더라도 상대가 균형감을 잃었을 때 빨리 부딪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환은 또 보스니아전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강한 수비진을 어떻게 뚫느냐가 열쇠이고 팀 전체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이 유럽스타일 축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보이지 않는 반칙으로 막겠다"

'진공청소기' 김남일(29·수원)이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아 수비역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공청소기에 업그레이드될 소프트웨어는 '수비역 강화'와 '보이지 않는 반칙'이다.

김남일은 "이번 독일월드컵부터 반칙에 관한 규정이 강화됐다"며 "포지션의 특성상 반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인 만큼 여러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은 "월드컵에서 지나친 반칙으로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당한다면 팀 전력에



엄청난 손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칙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남일은 "심판이나 다른 선수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반칙을 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반칙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웃음을 지었다.

박주영 "다양한 세트플레이 완성중"

지난 23일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김두현(성남)의 선제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박주영(FC서울)이 아드보카트호의 다양한 '약속된 플레이'를 살짝 소개했다.

박주영은 "디 아드보카트 감독이 다양한 종류의 세트플레이를 연습시키고 있다"며 "어떤 세트플레이를 펼칠지는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주영은 "크로스 타이밍에서 공격수의 위치에 따라 최전방으로 올려줄지 2선의 미드필더에게 내줄지 판단하고 있다"며 "세트



플레이는 경기 전날 집중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영은 김두현에게 볼을 내줄 때 슈팅 욕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터넷슛은 어려웠다. 30~40%의 확률 밖에 없는 무리한 슈팅보다는 (김)두현이 형에게 볼을 내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설기현 "역주행 ... 공 줄 곳이 없었다"

'스나이퍼' 설기현(27·울버햄프턴)이 지난 23일 세네갈과 평가전 이후 네티즌 사이에 일고 있는 일명 '역주행' 논란과 관련,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설기현은 25일 대표팀 집단 인터뷰에서 "당시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의 압박이 심해 돌아서지도 못했다. 패스할 곳을 찾았는데 공 줄 데가 없어 결국 빼앗겼고, 하마터면 팀이 위기를 맞을 뻔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세네갈이 생각보다 개인기나 압박 능력 등이 뛰어



나 결코 만만찮은 상대였다"고도 밝혔다.

세네갈은 이날 변칙적인 전술 운용과 강한 압박 등으로 태극전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시 설기현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잡은 뒤 패스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진영으로 볼을 몰고 가다 상대에 공을 빼앗기고 말았다.

"무작정 프레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을용). "기싸움, 몸싸움에서 더 강하게 살아남는다" (김두현). "의외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김남일). "미드필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유기적 움직임이 살아야 한다" (박지성). "허리가 끊기면 포백(4-back)이 힘들어진다" (백지훈).

태극전사들이 지난 23일 세네갈과 평가전을 통해 아드보카트호의 보완할 대목으로 갑자기 떠오른 '중원 해법'을 자체 진단했다.

세네갈전에서 삼각형 미드필더 편제가 체격과 개인기를 앞세운 세네갈에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본 셈이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25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진행된

■ 태극전사들이 자체 진단한 '중원 해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태극전사 단체 인터뷰에서 "중원에서 밀렸다고 미드필더들의 잘못으로만 짐작해서 곤란하다. 오히려 전체 11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진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트)은 태극전사 후배들에게 '생각하는 플레이'를 주문했다. 그는 "무조건 압박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

다.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한 쪽으로 두 명이 몰려 강하게 프레싱을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이를 알아채고 뒷 공간 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면 쉽게 당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태극전사들은 또 미드필더진에서 볼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전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세네갈전에서 '매운 맛'을 본 백지훈(FC

서울)은 "허리가 끊기면 포백에 선 선배들이 힘들어진다.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압박만 하는 것도 사실 문제다. 코칭스태프도 그 점을 지적했고 우리도 약점을 각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네갈전에서 캐논샷 선제골을 넣은 김두현(성남)은 "지훈이와 이호가 발을 맞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수원)은 "중앙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매 경기 불박이로 나서 안정감을 높이면 좋겠지만 축구란 항상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봐야 한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계속 다른 미드필더 조합을 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들의 한 표 행사
축구대표팀이 25일 오전 5:31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오는 31일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